

AIDS 감염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해당—위자료 3천만원에 이혼 허락 판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鄭德興부장판사)는 남편이 AIDS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결혼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김모씨(30세, 여)가 남편 이모씨(32)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하고 “이혼을 허락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결혼하기 전 이미 에이즈에 감염됐는데도 이 사실을 숨긴 채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부부관계시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아 부인이 병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게다가 이씨가 부인의 성실한 내조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일삼는 등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1년 5월 이씨와 결혼, 7개월 후 남편이 AIDS 감염자로서 보사부의 관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오히려 남편 이씨를 불쌍히 여겨 남편 뒷바라지에 애

써왔다. 그러나 이씨가 부인이 AIDS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지난 93년 남편이 “전염성 질환 전파 매개행위”를 했다고 소해 이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聯合)

남아공 에이즈 방지용 콘돔 무료 배포—9천 7백만개 조달—전국에 광고판도 설치

남아공화국은 AIDS를 유발하는 HIV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 배포용으로 9천7백만개의 콘돔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엔코사자나 주마 남아공 보건장관은 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증가하는 HIV 감염률이 의료와 복지, 경제개발, 교육에서 脫인종차별정책 이후 얻은 이득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료 배포를 위해 남자용 콘돔 9천7백만개와 여자용 콘돔 9만개를 조달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에이즈 예방 메시지를 담은 3백개의 광고판을 전국에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미 보건장관은 남아공 정부가 올해 에이즈 예방을 위해 8천5백5십만 란드(미화 2천3백4십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남아공에서 1만8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중 검사를 한 결과 7.6%의 HIV 감염물을 나타냈는데 그 이전에는 4.25%였다.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남아공의 3천9백만 인구 가운데 6십만명 이상이 HIV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케이프타운 로이터=聯合)

농아—無識者用 에이즈 예방 홍보물 시판

프랑스의 보건정보예방교육협회(AIPS)는 농아자, 이민자 및 무식자들에게 시각적으로 AIDS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홍보물을 제작, 시판 중이라고 일간 리베라시옹紙가 보도했다.

리베라시옹紙는 이 홍보물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감염경로, 예방 및 위험한 행위 및 그릇된 관념 등을 단순한 그림으로 설명하는 30장의 카드로 되어 있으며 透畫를 이용, 해서는 안될 행위는 X표시 또는 먹구름을 통해 보도록 하고, 해도 좋은 행위는 미소를 그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파리의 협찬으로 2명의 의사가 만든 이 홍보물에는 마약 중독자들간의 주사기 교환과 남녀 및 동성간의 각종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림들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파리=聯合)

전세계 청소년 성교육 강화 절실하다. 英보고서-너무 늦게 시작 에이즈 감염 우려

AIDS 확산을 막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는 새로운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런던의 한 가족계획 자선단체는 전세계 10대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지식을 극히 단편적으로만, 그것도 시기적으로 너무 뒤늦게 알게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에이즈나 원치 않는 임신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바리 스톱스 인터내셔널'이란 자선단체가 세계은행의 의뢰로 조사,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신뢰할만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용가능한 서비스도 불충분하며 당국의 관리정책도 융통성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여러나라에서 비록 그 문화가 서로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니카라과와 케냐의 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춘 이 보고서는 이 두나라 청소년들이 대개 섹스에 관한 정보를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의존하고 있어 잘못된 위험스런 풍설을 그대로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에 관한 이들 청소년의 지식 중에는 '돈 받고 성행위하는 여자들만 위험하다', '자위행위는 두뇌에 나쁜 영향을 주며 따라서 그같은 행위를 하면 나중에 강간범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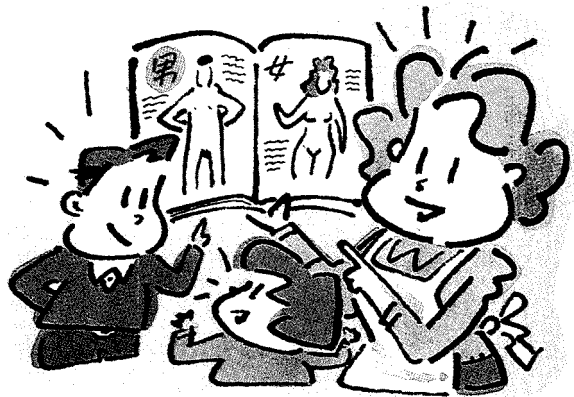
보고서는 또 "TV, 라디오, 영화가 섹스와 다른 성적 관계에 관한 정보를 점점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TV를 통한 미국문화의 영향이 니카라과와 케냐에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두나라가 매우 상이한 문화에도 불구하고, 10대 소녀들의

임신, 낙태율 증가 등 유사한 청소년 성문제들을 안고 있다면서 "특히 케냐에서는 15~19세 사이의 소년, 소녀들이 에이즈 유발 HIV 감염률이 제일 높은 연령층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이들 10대가 흔히 아무런 예방조치없이 성행위를 자행하며, 따라서 의학적으로 가장 위험스런 집단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 자선단체의 대변인 프란카 타르자씨는 이 보고서가 전세계 정부들에 보내는 지원의 호소라고 강조하면서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에서도 이번 보고서와 유사한 조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런던 로이터=연합)



日도 에이즈환자 증가 총 3천747명 —혈액제제감염 제외 3.4월 新 56명

지난 3.4월 일본에서 발생한 에이즈환자 및 감염자 수는 56명(혈액제제 감염 제외)으로 성적 감염 등 非 혈액제제 감염 누계가 1천9백55명에 이르렀다.

日후생성에 따르면 혈액제제 관련 감염은 1천7백92명으로 총계는 3천7백4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4월 중 보고된 56명 중 환자는 18명, 감염자는 38명이다.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남성 30명, 여성 2명이었으며, 외국인은 남녀 각각 12명으로 일본인 감염증가가 두드러졌다.

감염원인은 이성간 성적접촉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성간 성적접촉은 11명, 원인불명이 15명이다.

에이즈에 감염된 동남아시아 여성이 일본에 입국한 후 이성간 성적접촉으로 감염시킨 경우도 3건 있었다. (동경=聯合)

결혼식서 에이즈 예방 비디오 상영

AIDS의 소굴로 악명높은 태국 북부 치앙라이省은 주민들에게 AIDS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혈액검사결과 에이즈균이 발견되지 않은 남녀 커플 14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최근 본보기로 거행하고 예식장에서 하객들에게 AIDS의 무서움을

알리는 비디오를 상영했다.

치앙라이省 주부단체들의 후원으로 省정부 고위관리 및 현지 지역사령관과 경찰총수를 비롯한 5백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이 합동결혼식에서는 에이즈 예방법은 물론 가족계획, 육아법에 관한 다양한 비디오가 상영돼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치앙라이省 보건소는 이날 결혼식이 끝난 후 앞으로 혼인할 모든 남녀들에게 결혼 전 반드시 AIDS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고 결혼식장을 AIDS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 장소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방콕=聯合)

阿洲 에이즈 孤兒 2천년엔 1천만명 —보균어린이 이미 100만명 이상 태어나

오는 2000년까지 아프리카에서 10세 이하의 어린이 1천만명이 AIDS 고아가 될 것이라고 유엔의 한 조사보고서가 말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밝힌 보고서에 전세계적으로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에 감염된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다고 지적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미 1백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지닌 채 태어났다고 말했다.

UNDP의 유럽사무국 국장 알렉

도스씨는 "이는 우리 시대의 최대 위기로 전례없는 근절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AIDS는 아프리카 대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예방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라고 말했다. (파리 AFP=聯合) A

